

# 생활고·차별...탈북민 정착 힘들다

## 407명 중 75명 “재입북 생각해본 적 있다” 응답 의지할 곳 없어 소외감 증폭...“인식 개선 필요”

“탈북한 이후 3년 여간 한국에 정착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대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따가운 눈총을 받고 의지할 데도 없다 보니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20일 식당을 운영하는 탈북민 A씨는 중국 유학 중 ‘자유’에 대한 갈망과 기대감을 갖고 2010년 한국 땅을 밟았다.

변변한 자격증 하나 없던 그는 구직을 위해 각종 직업훈련을 받았고,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3개를 병행하기도 했다.

회계사의 꿈을 키우며 노력한 탓에 10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에 성공했지만, 회사 공개채용에서 번번이 실패했다. 재산도 없고 연고도 없는 탈북민에게

예산을 관리하는 보좌에 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곳은 노력하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이후 우울감에 시

달렸다”며 “북에서 계속 장교생활을 이어갔다면 더 성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월북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최근 탈북 1년여 만에 재월북한 탈북민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인식과 편견 등으로 ‘탈남’을 선택한 탈북민이 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극심한 빈곤과 혹독한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이 실제로는 소외감과 구인난·생활고로 고통을 받고 있어 안정적인 정착과 소속감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표한 ‘2021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보고서’ 등에 따르면 조사 대상 탈북민 407명 중 75명(18.5%)이 ‘재입북을 생각해본 적 있다’고 답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12월 기준 557명의 탈북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북을 생각한 이유로는 ‘고향 및 가족에 대한 향수’가 7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 이유로는 생계·정신건강·교육 및 진학 등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 발생의 근본적 이유로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따가운 시선이 이들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증폭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로인해 대부분 가족·지인 없이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탈북민들은 정착을 위해 직업 등을 가지고 사회구성원의 일원이 되려 노력하지만 따가운 시선으로 힘겨워 하는 실정이다.

실제 탈북민들은 부푼 꿈을 안고 남한으로 내려와 낯선 사회에 적응해 보려 했지만 차별과 편견, 비하 발언으로 인해 곤욕을 겪을 때가 많았다.

평안남도에서 온 B씨는 “말투가 달라서 ‘어디서 왔나’는 질문과 웃을 자러 입으면 ‘돈이 어디서 나서 웃을 샀나’ 등 의도가 보이는 말을 듣는다”면서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친해지기 꺼려

하고 비하 발언을 일삼는 사람도 있었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탈북민 C씨도 “핵실험·군사도발 등 대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화가 난 손님들이 식당에 찾아와 분풀이를 한다”며 “내가 한 일도 아니고 지금은 한국 주민인데 정말 억울하고 대북 문제가 발생할 땐 식당 문을 잠깐 닫을 게 고민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물질적 지원·복지는 충분하지만 인식 개선 등 정신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며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이나 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센터 관계자는 “한민족이지만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니 각 교육에도 한국에 적응하기 힘든 실정이고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움츠러들고 더 소외감을 느끼는 센터 회원도 많다”며 “지역사회에서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고 당국에서도 실질적인 정신건강 증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 전남교육청,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확대

전남도교육청이 올해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을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2022년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 지원 사업비 104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학생(3만 9,0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 씩의 장학기 준비비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고교생 체험학습비는 지원 대상을 4자녀 이상에서 3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학생 체험학습비, 고교생 장학기 준비비 구입비 및 기숙사운영비 등은 전년

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특히 전남교육청의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예산액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대 규모로, 세 자녀가 초·중·고 재학생인 경우 가구당 평균 60만 원의 지원이 예상된다. 또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해당하는 학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셋째 이후 자녀부터 지원하는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폭 넓은 지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지난 2021년에도 추정 예산에 30억 원을 확보해 세 자녀 가정 고등학생에게 학습자료 구입비 지원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나라 기자

## 순천 전통시장서 80대 소매치기 철창행

설 명절을 앞두고 혼잡한 전통시장에서 고구마 장수의 지갑을 소매치기한 80대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서는 순천의 한 시장에서 소매치기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A씨(81)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낮 12시 10분께 순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혼잡한 틈을 타 고구마 구마를 사는 척 하면서 고구마 장수의 앞치마에 들어 있던 현금 17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장 주변에 설치된 CCTV를 검색하는 등 추적 수사를 벌여 이를 만여 마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출소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14년 전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전문적으로 소매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 ‘시속 200km’ 중앙분리대 충돌 10대 2명 숨져

1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탑승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5시께 담양군 호남고속도로(순천-광주 방면)를 달리던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K5가 반파되면서 탑승자였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A군(19)과 B군(19)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들은 사고 전날인 17일 렌터카를 빌

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결과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군만 면허가 있다는 점을 토대로 A군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시속 200km로 달리던 중 커브 구간에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명 모두 사망해 공소권이 없어 수사가 종결될 것”이라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 북구, 신축 공사 현장 안전점검

광주시 북구는 동절기 공사 품질 관리 위해 지난 17일부터 신축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건설시공을 유도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은 다음달 11일까지 공동주택·재

개발·재건축 현장 17곳과 3층 이상·1,000㎡ 이상 건축물 현장 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북구는 소관 부서 공무원과 품질검수단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통해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관련 시방서 준수 여부 ▲설계도서 및 설계변경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최환준 기자

## 전남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내달 2일까지 특별치안활동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도민이 안심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 간 ‘설 명절 특별치안 활동’을 추진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특성과 도민 의사를 반영한 사전예방적 경찰활동을 전개해 주민 안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20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설 연휴 기간 112 전체 신고는 평시보다 감소했으나 명절 분위기를 해치는 가정폭력과 폭력 등 사회적 약자 범죄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가정폭력(아동학대)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해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해 재발위험과 보호 지원 필요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무허가 유흥시설운영과

자가격리 이탈 등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국민 불안감도 해소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범정부적 재난 대응에도 적극 동참한다.

아울러 치안활동 추진 기간 동안 경찰 순찰활동을 보다 체계화·다각화해 주민



사전투표 운용방법 교육

제20대 대통령선거를 48일 앞둔 20일 오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4층 대강당에서 사전투표 장비담당 사무원들이 모의투표용지 출력 등 사전투표 운용방법을 배우고 있다. /김성훈 기자

점검을 넓히고, 치안 빅데이터를 활용해 범죄 등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등 선제적·능동적 예방치안활동을 전개할 방침이

다. 특히 범죄예방진단팀(CPO) 중심으로 지역 내 범죄취약요인 진단 및 분석 후 해결이 시급한 테마를 선정해 인력 투입

및 순찰 강화, SNS 등 활용 홍보, 환경개선 등 취약요소에 적합한 대책을 추진한다. /최환준 기자

경매 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상가매매(상무지구)	신축원룸매매(신축)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① 기초반, ② 중급반, ③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p> <p>시세 -&gt; 9억</p> <p>급매가 -&gt; 5억8천</p> <p>(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끝(공실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수익 750만</li> <li>• 년수익 9000만</li> <li>•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li> </ul> <p>★ 4개동(월수익 3000만) =&gt;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010-6670-9800</p>
광주	<p>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gt; 최저가 1억7천 (1/21)</p> <p>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gt; 최저가 1억1천 (1/27)</p> <p>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gt; 최저가 66억 (2/3)</p> <p>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gt; 최저가 2억9천 (2/3)</p> <p>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gt; 최저가 5억6천 (2/3)</p> <p>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gt; 최저가 2억2천 (2/3)</p>		
전남	<p>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gt; 최저가 5억1천 (1/10)</p> <p>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gt; 최저가 14억 (1/10)</p> <p>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gt; 최저가 22억 (1/10)</p> <p>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gt; 최저가 3억5천 (1/20)</p> <p>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gt; 최저가 6천1백 (1/27)</p> <p>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gt; 최저가 2억9천 (2/3)</p>		
시외	<p>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gt; 13억 (1/13)</p> <p>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gt; 최저가 32억 (1/25)</p>		